



구 청 장 인 터 뷰

- ◇ 일 시 : 2020. 3. 5. (목) 11:00
 - ◇ 진 행 자 : 구지은 아나운서
 - ◇ 제 목 : 뉴스특보 '뉴스인'
 - ◇ 내 용 : 코로나19 금정구 대응상황 및 대책
 - ◇ 방영일시 : 2020. 3. 5. (목) 14:50
-



부산광역시 금정구
Geumjeong-gu, Busan Metropolitan City

인사말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한 상태이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인데요.
정미영 금정구청장과 함께 자가격리자 등 관리 체계와
지자체 대응책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질 문 1

금정구 확진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금정구에서는 2월 23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월 25일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는
오늘까지 9일째 금정구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구요.

어제는 확진자 중 한 분이 완치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금정구민과 금정구청 직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2

자가격리된 주민들도 있을텐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A. 현재 자가격리 중인 구민분들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확진자의 가족분들이나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서 2미터 이내에

근접하게 있었던 분들이에요.

우선 금정구는

자가격리되는 구민에게

마스크와 체온계, 소독제와 폐기물봉투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된 구민 한 분당 직원 한 명이 전담해서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격리기간 중의 불편사항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면서 14일간 자가격리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자가격리된 구민분들 중에

1인가구나 확진자의 가족,

전가족이 격리되신 경우에는 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드실 수 있도록

쌀과 즉석밥, 라면과 통조림 같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계시는

구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3

매일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들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동선에 따른 시설 폐쇄와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A.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를 대상으로 이동 동선들을 파악해서
금정구 홈페이지와 SNS, 재난안전문자로
신속하게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는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24시간 일시적으로 폐쇄조치하며
방문지 인근지역은 집중 방역을 하고 있어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방문업체들은 손님들이 줄어서 마음고생이 심하신데요.

금정구는 주민들이 느끼실 불안감도 덜어드리고
침체된 지역 상권도 살리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한 업체에는
‘금정 안심존’ 인증마크를 붙여 드리고 있어요.

동선에 포함된 업소는 소독 등 방역을 거쳤기 때문에
방문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증인거죠.

구민분들이 어려운 상인들의 고통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금정구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불안을 느끼시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철저히 방역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금정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기로 하셨죠.
마스크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 배부가 결정됐나요?

A. 먼저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많은 구민들께서 마스크 구매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지난 3일
구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구민에게 1인당 2장씩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부해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마스크 배부를 위해서 예비비 7억 원을 확보했지만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서
3일에는 제가 직접 양산의 마스크 공장에 가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간곡히 이야기하여
공장에서부터 빠른 시일 내 공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저희 부구청장님은 어제 전라도의 마스크 공장에까지 다녀오셨구요.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이르면 이번 주부터 금정구 전 구민에게 1인당 2장씩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배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 문 5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죠?

A. 금정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재난관리기금 8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서
경로당, 어린이집 같은 취약시설과
주민다중이용시설, 대학교,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등에
마스크 1만여 장과 손소독제 1만5천여 개 등
예방물품을 선제적으로 배부했어요.

노인,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예방물품을 구매하면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사회복지시설들의 휴관과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휴원 기간 동안 이 시설들을 철저히 방역소독해서
2차감염을 예방하고 있어요.

질 문 6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당부의 말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손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코로나19는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외출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일상이 이렇게 귀한 건지 이번에 새삼 깨달았습니다.

금정구는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돌려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